

프로이트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프랑스 혁명

린 헌트의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이즈음 점두에는 문화로 읽는 혁명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정치적 시각만이 강조된 혁명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이 책들은 독자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는 서구 역사학계에 불고 있는

신문화사의 대표주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소설·판화·회화·포르노그래피·멜로드라마 등을

분석, 당대인들의 정치적 욕망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어린시절 한번쯤 상상해봄직한 일이 있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우상이었던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고, 더 멋진 다른 어른이 자신의 아버지였으면 하고 바꿨던 일 말이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이같은 현상을 가리켜 '가족 로망스'라 이름붙였다(설명이 부족하다면 "훌륭한 아버지를 갖지 못했을 때는 훌륭한 아버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니체의 말을 기억하면 된다). 그러나 어렵게도 프로이트 자신은 이 이론을 더 이상 정치(精緻)하게 발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에 차용돼 그 이론적 깊이를 더해왔다.

문화로 읽는 혁명사

최근 출간된 린 헌트의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조한욱 옮김, 새물결)는, 이 이론이 역사학 분야에 접목돼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다. 물론, 이 책이 프로이트가 말한 가족 로망스를 대전제로 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다양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천착을 통해 프랑스 혁명을 이끌어간 기본 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가족 로망스라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은이가 문화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은이의 예민

린 헌트 지음/조한욱 옮김/A5신/새물결

한 역사학적 축수가 닿은 곳은 흔히

말하는 '사료(史料)'와는 거리가 멀다.

당대인들의 정치적 욕망을 읽어내기 위

해 지은이는 소설·판화·회화·포르노그

라피 팜플렛·멜로드라마 등을 분석한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국가의 권위가 가족내의 권위와 같은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8세기의 유럽인들은 지배자를 아버지라 생각했고, 국가는 대규모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족 로망스라는 틀의 유효성이 발휘된다. 18세기 프랑스인들은 '권위적인'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바꾸고 싶어했는데, 그 집단적 소망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이 소설과 회화였다. 지은이는 프랑스혁명기 이전에 널리 읽히고 그려진 소설과 회화 분석을 통해 흔들리는 권위적인 가부장상(像)을 극명하게 분석해낸다. 그리고 꿈은 곧 현실이 됐다. 가족질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좋은 아버지로), 이같은 가족질서는 정치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군주체제의 기반이 치명적으로 잠식당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절정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순간이다. 이 부분에서 지은이는 기존

의 가족 로망스 개념을 잠시 유보한다. 아무래도 가족 로망스는 '살부(殺父)'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타'로 지은이가 '기용'하고 있는 이론적 틀은 프로이트의 《토텐과 터부》.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동맹이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제에게 유대를 맺었다는 가설에 입각해 프랑스혁명을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루이 16세 처형 후 눈길을 끄는 것은, 앞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권력의 변화가 가정 질서를 바꿨다는 사실이다. 가정에 잔존하는 전제적인 권력을 추방하는 다양한 조치가 잇따라 법제화됐다. 발자크의 말대로 "루이 16세의 머리를 자름으로써 공화국은 가정의 모든 아버지 머리를 잘랐던 것"이다.

여성이 제외된 정치적 자유의 한계

혁명을 통해 해체됐던 가정은 새롭게 재건돼야 했다. 그러나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었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질서를 갖춰야만 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정당한 우두머리로 복구됐지만, 아무런 제약도 없는 폭군이 아니라 양육자와 안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열려진 정치적 자유의 지평에 여성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권력의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정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모델이 강구됐다. 그런 의미에서 "가부장제는 과거로 떠밀려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속적인 복종을 위한 장치로 교묘히 변형됐다"는 지은이의 지적은 적절하다.

이른바 신문화사의 맨 앞자리에 선 지은이의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70~80년대의 권위적인 통치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가족 로망스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학도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 이권우 기자

